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4 우리가 된다

광주기아자동차마라톤클럽

“실력 검증·동호회 저력과 위상 알리겠다”

2004년 창단 올해로 15년
회원 100여명 ‘호남 최대’
폴코스 3시간내 완주
100회 완주 등 실력 출중
주 2회 훈련하며 대회 준비

“3·1정신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클럽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에 달리겠습니다”

광주기아자동차마라톤클럽(회장 김경민·이하 기아클럽)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5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35명의 회원들이 출전한다.

2004년 창단에 꾸준한 활동으로 올해로 15년을 맞는 기아클럽은 광주의 대표적 마라톤 동호회로 회원수만도 100여명이 넘는 등 호남지역 최대의 마라톤클럽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 마라톤에서 2시간 39분에 완주한 정 현 사



다음달 4일에 열릴 제5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35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광주기아자동차마라톤 클럽. 사진은 지난해 3월 52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출전 당시 모습.

무장을 비롯해 서브쓰리(폴코스를 3시간내 완주) 기록을 가진 회원들도 10명이 넘고 김경민 클럽회장과 박재천 동호회 감독 등 폴코스 100회 완주 회원들도 있는 등 오랜 역사만큼 출중한 실력의 소유자들

다수 있다. 기아클럽 회원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박재천 감독의 지도 아래 어등산 석봉에서 광주여대, 첨단 교통공원과 장성 IC, 너릿재 공원 코스 등을 달리며 컨디션을 조절

하고 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훈련하며 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검증과 함께 동호회의 저력과 위상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맘을리고 다독이고 운동하다보니 클럽회원들을 넘어 가족들도 친해졌다. 휴일이면 무등산 등반 및 제주도 여행 등 각종 여가 활동을 함께 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정 현 사무장은 “2018년 처음으로 열리

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만큼만큼 겨울 동안 철저한 준비했다. 회원 모두의 완주가 목표지만 자신의 몸상태를 잘 살펴 사 고없는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성훈 “친정 낫설지만 다시 야구하니 좋다”



해변서 고기파티·몸풀기 게임 ‘유쾌한 캠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호랑이 군단’의 휴식일 전날이었다.

KIA 선수들에게 스프링캠프 분위기를 물으면 답은 한결같다. “우리 팀 분위기는 항상 좋잖아요!”

27일 캠프 분위기는 더욱 좋았다. 28일 휴식일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하프 데어로 일찍 훈련이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이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훈련을 시작했다.

3월 1일부터 다시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빈틈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훈련 스케줄이 짜였다. 본 구장

과 보조구장을 부지런히 오가면 쉬는 시간 없이 훈련이 진행됐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밝았다.

김민호 수비 코치표 ‘즐거운 훈련’이 한 몫했다.

보조구장에서 수비 훈련을 소화한 야수들은 연습이 끝난 뒤 잔디에 누워 ‘공 피하기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나란히 누운 선수들이 김 코치가 아래로 굴러가나 위에서 던진 공을 피해야 하는 미션. 공을 피하기 위해 선수들은 허리를 들거나 옆으로 구르는 등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정성훈의 2018 스프링 캠프는 ‘소중함’이다. 정성훈은 지난 스토브리그의 관심 인물이었다. 2017 시즌이 끝난 후 그는 9년 동안 몸을 담았던 LG 트윈스에서 방출됐다. 특별한 부상이 있거나 지독한 부진에 빠진 게 아니었던 만큼 정성훈의 거취에 눈길이 쏠렸다.

그리고 정성훈은 예상대로 자신이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고향이자, 스승 김기태 감독이 있는 타이거즈로 돌아왔다.

1999년 KIA의 전신 ‘해태’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던 그는 임창용과 마지막 해태 시절의 멤버로 고향에서 자신의 야구 인생을 정리하게 됐다.

정성훈은 “야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똑같다”며 조금은 낯선 캠프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똑같은 야구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느껴진다.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야구에 대한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KIA 타이거즈의 정성훈이 3루에서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



1999년 해태서 데뷔 LG서 9시즌 뛰다 방출 “챔피언쉽 되면 실감 날 듯”

마음이 낫설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성훈은 “운동은 예전하고 야구가 하고 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그게 좀 바뀌었다. 마음이 이제 야구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며 “야구를 못 하게 됐다가 다시 하게 돼서 좋다. 야구를 한다는 게 가장 좋다. 운이 좋았다”며 20번째 시즌을 준비하게 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친정어기는 하지만 오래 떠나있었던 만큼 아직은 낫설기도 한 KIA. 정성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캠프를 치르고 있다. 1루에서 주로 연습을 하는 그는 한동안 가지 않았던 3루에서도 공을 받고 있다.

정성훈은 “후배들이 김주찬이나 이범호가 자리를 잘 잡아놓은 것 같다. 내가 그 참 나에 와서 야구를 하게 됐다. 후배들에게 고맙다”며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하다. 아직은 고향팀에 왔다는 게 크게 실감 나지는 않는다. (챔피언쉽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조금씩

다들 것 같다. 무엇보다 야구를 다시 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3천억 몸값’ 네이마르 골절...최소 3주 결장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가 쓰러졌다. 오른쪽 발 골절돼 당분간 실전 경기를 치를 수 없다.

네이마르의 소속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파리생제르맹은 27일 “네이마르가 오른쪽 발목 염좌와 종족골(발목과 발가락 사이의 뼈) 골절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언론은 재활과 회복에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생제르맹은 “정확한 부상 상태는 오늘 추가 검진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마르는 지난 26일 올랭피크 드 마

르세유와 경기에서 후반 막판 볼 경험 과정에서 총동해 쓰러졌다. 들것에 실려간 네이마르는 병원 진단 결과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네이마르는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사상 최고의 이적료, 2억2200만 유로(약2925억원)를 기록하며 스페인 FC바르셀로나에서 파리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파리생제르맹은 다음 달 7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앞두고 있다. 네이마르는 중요한 일전에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오승환 토론토와 1년 계약

한국 북극까지 고민했던 오승환(36)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빅리거 생활을 이어간다.

토론토는 27일 “오승환과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승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

토론토 구단은 보도자료에 “오승환과 175만 달러(약 18억7000만원)에 1년 계약을 했다. 2019년은 베스팅 옵션(구단이 제시한 기록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것)으로 연봉은 250만 달러(약 26억8000만원)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취재진은 “오승환이 1+1년 최대 750만 달러(약 80억4000만원)에 계약했다”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렸다. 2018년에는 200만 달러(약 21억4500만원)를 보장받고, 구단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150만 달러(약 16억원)의 보너스

를 받는다. 올해 적정 수준의 활약을 펼치면 2019년에도 토론토에 남아 연봉 250만 달러를 받고, 보너스 150만 달러(약 16억원)를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오승환은 “토론토와 계약해 기쁘다. 토론토는 협상 과정에서도 나를 꼭 필요로 한다는 진정성을 보였다. 빨리 합류해 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토의 약 12만명 한국 교민들의 응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환은 28일 토론토 블루제이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승환은 2016년부터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2년 동안 138경기 출전, 7승 9패 39세이브 평균자책점 2.85로 활약했다. 토론토에는 메이저리그 정성급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나가 있어, 셋업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집

KIA 타이거즈가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타이거즈 C.C.(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를 모집한다.

타이거즈 C.C.는 KIA 선수단 및 구단, 팬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팬들에게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거주 대학생으로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영상(사진) 분야

2명을 뽑으며,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3월 7일까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자유 주제 영상 1건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타이거즈 C.C.에게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출입할 수 있는 AD 카드와 구단 의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